

‘화력 폭발’ KIA, ‘감독 교체’ 곰 마운드 초도화

KIA, 두산전 11대3 대승 ‘5할 승률 복귀’

양현종, 5이닝 5K 1자책 ‘4승’...홍원빈, 데뷔 첫 마무리 등판
최원준·김호령 ‘3안타’...윤도현·위즈덤·오선우 ‘멀티 히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막강 화력을 앞세워 2연승을 달렸다.

KIA는 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11-3,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시즌 성적 28승 28패 1무를 기록한 KIA는 5할 승률에 복귀하며 리그 7위를 유지했다.

이날 KIA 타선은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의 두산을 상대로 장단 13안타를 몰아치며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우익수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최원준이 4타수 3안타 2타점의 맹타를 휘둘렀고 김호령도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필승 날았다.

윤도현과 위즈덤, 오선우도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고른 타선의 힘을 보여줬다.

선발 투수 양현종은 5이닝 5피안타 1사사구 5삼진 2실점(1자책)의 호투를 펼치며 시즌 4승째(4패)를 올렸다.

불펜진의 활약도 빛났다.

성영탁, 전상현, 최지민, 홍원빈(1실점)은 단 2피안타 1실점만 허용하며 두산 타선을 효과적으로 잠재웠다.

KIA는 경기 초반부터 올 시즌 첫 등판인 두산 선발 박민호의 난조를 틈타 기선을 제압했다.

1회초, 볼넷 3개로 만든 1사 만루 기회에서 오선우의 2타점 적시타로 선취 득점했다. 이어진 만루 찬스에서는 황대인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하며 3-0을 만들었다.

1회말, 1점을 내준 KIA는 4회초 매서운 공격력으로 두산 마운드를 괴롭혔다.

김호령의 2루타와 박찬호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2루 찬스에서 최원준이 적시타를 때린 데 이어 윤도현과 위즈덤까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3점을 추가, 6-1로 점수차를 벌렸다.

KIA는 5회말 우익수 포구 실책으로 1점을 헌납했지만, 8회초 다시 한번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선두타자 김호령의 2루타를 시작으로 박찬호와 최원준까지 3연속 2루타를 기록하며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KIA 선수들이 9회 데뷔 첫 마운드에 올라 팀 승리를 지켜낸 홍원빈을 격려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순식간에 2점을 추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도현의 적시타, 오선우의 안타, 상대 수비 실책까지 더해 대거 5점을 보태며 사실상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9회말 프로 데뷔 7년 만에 1군 무대에 오른 홍원빈이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줬지만, 나머지 아웃카운트를 무난하게 처리하며 팀의 11-3 승리를 지켰다.

KIA는 4일 '에이스' 네일을 앞세워 주중 두산전 위닝시리즈를 노린다. 두산 선발 투수는 최민석이 예고됐다.

한편, 이날 전국 5개 구장에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하며, KBO 리그는 역대 최소 경기인 294경기 만에 5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종전 기록(332경기)을 38경기 단축한 것이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던 2024시

즌(345경기)보다도 51경기나 빠른 페이스다.

3일까지 평균 관중은 1만7천346명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으며, 삼성, LG, 롯데가 평균 2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한화는 홈 22경기 연속 매진 신기록을 세우는 등 KBO 리그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주홍철 기자

기지개 권 고진영, 시즌 첫 우승 정조준

7일 개막 LPGA 숄라이트 클래식출격...세계1위 코르다·세계2위 티파꾼과 우승 경쟁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을 마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54홀 대회' 숄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으로 이어진다.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저지주 잭러웨이의 시부 베이 코스에서 열리는 숄라이트 클래식은 LPGA 투어에선 드물게 사흘간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리는 대회다.

LPGA 투어 정규 대회 중 유일하게 일정으로 열리는 건 이 대회와 9월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뿐이다.

상금도 LPGA 투어 대회 중 제일 적은 편인 데다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 직후 열리지만, 올해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와 2위 지노 티파꾼(태국)이 모두 출전해 무게감이 달라졌다.

US여자오픈에서 LPGA 투어 통산 2승이자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기쁨을 누리며 세계랭킹 6위로 뛰어오른 마야 스타르크(스웨덴)는 내친김에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한다.

이번 대회엔 한국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1999년 박세리, 2006년 이선화, 2017년 김민경에 이은 대회 통산 4번째 우승 도전에 나선다.

US여자오픈에서 나란히 공동 14위로 선전한 고진영과 윤이 나에게 시선이 쏠린다.

고진영은 4월 JM이글 LA 챔피언십(공동 7위), 세브론 챔피언십(공동 6위)에 이어 US여자오픈까지 자신이 출전한 3개 대회 연속 상위권 성적을 냈다. 그의 시즌 첫 우승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고진영의 LPGA 투어 대회 우승은 2023년 5월 코그니트트 파운더스컵이 마지막으로 어느덧 2년 넘게 흘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시즌 큰 주목을 받으며 미국 무대 도전에 나섰다.

이나 시즌 초반 만만치 않은 적응기를 보낸 윤이 나는 US여자오픈에서 데뷔 후 최고 순위에 올라 자신감을 끌어올린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밖에 김세영, 임진희, 이소미, 박성현, 지은희, 주수빈, 강해지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승리 요정’ 에이티즈(ATEEZ) 윤호 KIA, 7일 안방 한화전 승리기원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 인기 보이그룹 에이티즈(ATEEZ)의 멤버 윤호를 시구자로 초청한다.

윤호의 챔피언스 필드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25일 KIA의 홈 경기에서도 시구에 나선 그는 깔끔한 투구폼과 당일 경기 승리로 ‘승리 요정’으로 불리며 팬들의 눈길을 끈 바 있다.

평소 타이거즈 팬으로 남다른 팬심을 보여준 윤호는 “지난해 시구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며 “챔피언스



에이티즈(ATEEZ) 윤호 <KIA 타이거즈 제공>

필드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고, 이번 시구에도 승리의 기운을 가득 담아 선수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홍철 기자

전남도체육회, 국비 9억9천여만원 확보 ‘경쟁력 강화’

목포대·동신대 팀 창단,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기대

전남도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9천200만원을 확보,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다진다.

전남도체육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총 8개 단체, 20개 팀(창단지원 2개교 2종목, 운영지원 6개 단체 18개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각각 나뉘어 공모한 이번 사업에서 전남은 창단지원 2개 대학 2종목 3억9천400여만원, 운영지원 6개 단체 18개팀 5억9천700여만원 등 총 9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지원 규모(2억9천만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창단지원 분야에서는 ▲목포대 육상팀(2억5천500만원) ▲동신대 태권도팀(1억3천977만원)이 각각 3년간의 예산을 지원받아 팀을 새롭게 꾸민다.

두 팀 모두 지역 내 대학 스포츠 활성화와 더불어 우수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선수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전남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한국전력 등 총 6개 단체 18개 팀이 선정돼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청은 펜싱, 소프트테니스, 근대5종, 카누, 우슈, 스쿼시 등 6종목에서 9천725만원, 목포시는 육상과 하키 종목에서 1억원, 여수시는



송진호(사진) 전남도체육회장은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 체육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이번 선정 결과가 전남 체육의 저변 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서의 실적 거양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종 기자

요트, 유도, 육상 종목에서 1억3천만원, 순천시는 소프트테니스, 양궁, 유도에서 1억1천500만원, 광양시는 육상과 불륜에서 7천만원, 한국전력은 럭비와 육상에서 8천5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송진호(사진) 전남도체육회장은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 체육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이번 선정 결과가 전남 체육의 저변 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서의 실적 거양을 통해 전국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종 기자

‘현장과 소통, 안정적인 행정체제 구축’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회의 성료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일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펼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최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가맹단체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경기단체와 유형별 체육단체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해 조직 및 규정 정비, 우수선수 및 경기용 기구 지원, 보조금 정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올해부터 도비 예산 1

억8000만 원을 확보해 상·하반기로 나눠 가맹단체 사무국의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다.

또한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을 목표로 도 대표 선수 선발과 경기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했다.

서정진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가맹단체 운영비와 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행정 체계와 훈련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희종 기자